

# 교회영역

##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지난 2012년부터 자발적불편운동을 펼쳐 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며 이웃과 약자를 위해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자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행동 30가지를 선정해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그 중 교회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일들을 소개한다.

#### 교회 공간, 지역사회를 섬기는 통로로!

백주년기념교회는 예배 공간은 물론 세미나실과 선교회 기념관, 주차장 등 교회의 모든 공간을 협의와 신청 하에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섬김의 정신으로 시작된 것인데, 여기에는 재정과 관리의 문제, 교회 내부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될 것이다.

#### 투명한 재정관리, 회복되는 공동체성

교회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과정으로,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재정관리에도 사역의 자금줄 역할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인 교인들이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는 불편이 따르지만, 그러한 불편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과정이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 장애인의 접근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장애인 성도에게 교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장애인 성도의 접근성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며, 교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장애인 성도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배, 교육, 교제, 섬김, 구제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성도가 교회의 모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 주일 주차대란은 이제 그만!

자가용을 타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주변의 주차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몇몇 대형교회 예배의 시작과 끝 시간은 무법천지가 된다. 교통 혼란으로 많은 민원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한 지역에 속한 교회로서 마땅히 그 지역을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교회 주변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회 차원에서는 건축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열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 자발적 불편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의 간식 사기

교회학교와 각종 행사들, 매주 진행되는 각종 모임 등에 필요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식은 성장을 고려한 친환경적 재료로 만든 것을 추천한다. 유기농 과자나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빵, 과자류도 좋다.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구제사역에도 동참하는 것이다. 아예 교회의 구매 활동을 포괄적으로 구제사역과 접촉해 담당하는 부서를 꾸리는 것도 좋다. 이런 부서가 창의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차원의 구제와 선교가 열리게 된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관계와 함께 거룩하게 소비하고 거룩하게 먹고 마시게 되기를 바란다.

## +plus

### 교회에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1. 주제가 주변 교회에서는 늦은 시각에 통성 기도, 찬양 모임 지양하기
2. 공공장소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
3. 지역 특거 어르신 보살피기(도시락 배달)
4. 자살자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로하는 예배드리기
5.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을 환대하기
6. 좋은 활동하는 시민단체 후원하기
7. 교회 주변의 거리, 놀이터, 지역 청소하기
8. 여성과 이기를 배려한 공간 마련하기
9. 어르신, 자녀 동반 가족부터 식사하기
10. 남녀 구분 없이 식당 봉사하기
11. 상시적으로 물품 공유하기(버지회, 아이들 장난감, 도서 등)
12. 양성평등 교육하기: 교회 내 성역할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
13.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청년 비율 높이기
14. 나이·지위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기(언어, 사생활, 신체접촉)
15. 재생종이로 교회 주보 만들기
16. 건축할 때 채광, 단열을 고려하기(조명 및 냉/난방 에너지 절약)
17. 전기절약형 교회 십자가 설치 및 최소한으로 점등하기(빛 공해)
18. 꽃꽂이 생략 또는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기
19. 연말연시 행사는 소박하게 운영하기
20. 현금거래를 지양하고, 세금계산서 제대로 받기
21. 악보 무단 복제하지 않기
22.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하기

\*기윤실에서 발행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요약하였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emk.org